

한국에서의 《文心雕龍》 流傳樣相

- 신라·조선시대를 중심으로 -

朴 現 圭*

<目次>

- | | |
|-------------------------|--------------------------|
| I. 서론 | III. 朝鮮시대 《文心雕龍》
流傳樣相 |
| II. 新羅시대 《文心雕龍》
流傳樣相 | IV. 結 論 |

I. 서론

劉勰의 《文心雕龍》은 총 50편으로 중국 中古文學의 대표적 이론 평론서이다. 文心은 문장 창작에 임하는 마음의 원리를 말하고, 雕龍은 문장을 정교하게 창작하는 방법을 말한다. 여기에 언급된 문학이론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복합 구조물처럼 원론과 본론, 편과 편의 연결이 유기적으로 짜여 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문심조룡》을 역사적으로 매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론서 중의 하나로 꼽고 있다.

《문심조룡》은 501년(齊 中興 1)에서 502년(중흥 2) 사이에 편찬되었다. 이 책자는 유협이 활동하던 양나라 때에 이미 유통되고 있었다. 양 昭明太子가 《文選》을 편찬할 때에 《문심조룡》을 참고하여 문장 선록 기준으로 삼았다. 《梁書》 <劉勰傳>에는 《문심조룡》의 개괄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다. 후대 각종 문헌에 《문심조룡》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할 정도로 지명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 책자의 문구를 자주

* 순천향대 국제어문학부 중어중문학과 교수

인용할 정도로 피인용도가 매우 높다.

《문심조룡》은 일찍부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해외국가로 전래되었다. 필자는 얼마 전에 신라 崔致遠의 <有唐新羅國故兩朝國師教諡大朗慧和尚白月葆光之塔碑銘>(이하 <朗慧和尚碑>로 약칭함)을 활용하여 《문심조룡》과 《文賦》가 신라시대에 처음 전래된 시기에 대해 논한 적이 있다.¹⁾ 이번에는 논술범위를 확대하여 《문심조룡》이 예전의 한국, 즉 신라시대부터 조선 말기까지 어떻게 유통되었고, 한국 학자들이 《문심조룡》을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필자의 과문인지 모르겠으나, 국내외 학계에서 여기에 관한 선행논문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II. 新羅시대 《文心雕龍》 流傳樣相

《문심조룡》이 언제 한반도에 전래되었을까? 현존 자료에 의하면 신라 崔致遠의 <낭혜화상비>가 가장 빠르다. 이 비문에 《문심조룡》이 신라시대에 처음 전래된 과정을 논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서를 남겨놓았다. <낭혜화상비>는 890년(眞聖女王 4)에 편찬되었다. 이 비석은 충남 保寧市 聖住面 聖住里 聖住寺址에 소재하며, 국보 제8호이다. 비문의 피전자인 낭혜화상은 無染의 시호이다. 최치원은 당나라 賓貢科에 급제하여 溧水 등지에서 벼슬을 했던 문인이고, 낭혜무염도 당나라에 들어가 불법을 닦아 동방 대보살로 물리는 고승이다.

<낭혜화상비> 중 《문심조룡》과 관련된 부분을 옮겨보면:

上曰: “弟子不佞, 小好屬文. 嘗覽劉勰《文心》, 有語云: ‘滯有守無, 徒銳偏解, 欲詣眞源, 其般若之絕境’, 則境之絕者, 或可聞乎?” 大師對曰: “境既

1) 朴現圭: <《文心雕龍》과 《文賦》의 한국 傳來 時期攷>, 《仁山學》, 3집, 仁山學研究院, 2005.12, 1~16쪽.

絶矣, 理無矣. 斯印也, 默行爾.”(亞細亞文化社本, 책1, 76~77쪽)

왕(경문왕)이 말하기를 “제자는 재주가 없으나, 글짓기를 조금 좋아했습니다. 일찍이 유협의 《문심조룡》을 열독하니, ‘有에 머물거나 無를 지키는 것은 한갓 편벽된 견해로 나갈 뿐이다. 지극한 본원에 나가고자 하면 그것이 般若의 絶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지의 다함을 혹 들을 수 있습니까?” 대사(낭혜무염)가 말하기를 “경지가 이미 다하면 진리도 없습니다. 이는 心印이니 묵묵히 행할 뿐입니다.”

여기의 上은 신라 景文王을 지칭한다. 871년(경문왕 11)에 경문왕은 교서를 보내어 낭혜무염을 慶州로 청하여 스승으로 삼았다. 경문왕은 낭혜무염에게 반야의 경지에 대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문심조룡》의 한 문구를 인용했다. 경문왕이 인용한 《문심조룡》 구절은 제18편 <論說>에서 나왔다. 論體를 창작함에 있어 王衍(夷甫)과 裴頠의 경우처럼 유나 무 어느 한 쪽에 치우쳐 있으면 안 되고, 유무가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경지의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고 했다.²⁾

경문왕이 《문심조룡》을 접한 시기는 언제인가? 경문왕의 출생년은 미상이고, 861년에 왕위에 등극했다. 상기 글에서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경문왕이 낭혜무염과 접견한 871년(경문왕 11) 이전에 《문심조룡》을 접했다. 낭혜무염은 경문왕과의 문답에서 《문심조룡》 구절이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는 반야의 경지란 有와 無가 끊어진 상태, 즉 사고의 지극함에 머무는 경지라고 했다. 이 말은 유무의 조화를 추구하는 《문심조룡》 구절과도 상통하고 있다. 그래서 낭혜무염도 이 이전에 이미 《문심조룡》을 열독했다고 봐야할 것이다.

경문왕이 《문심조룡》을 열독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문심조룡》은 불교 사상이 흠뻑 스며있는 문학 이론서이다. 상기 글에서 보듯이 경문왕은 독실한 불교 신자이며 글짓기를 좋아했다. 재위 기간에 국학을 강화하

2) 《문심조룡》 제18편 <論說>: 「夷甫裴頠, 交辨於有無之域; 並獨步當時, 流聲後代. 然滯有者, 全繫於形用; 貴無者, 專守於寂寥; 徒銳偏解, 莫詣正理; 動極神源, 其般若之絶境乎?」(學海出版社本, 327쪽)

고 黃龍寺 9층탑을 수축하는 등 불교와 국학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 그는 평소 자신이 추구하는 사상과 기호를 채워주는 좋은 독서물로 《문심조룡》을 택했다. 낭혜무염도 불교 이론과 세상 교화 작업을 정립하기 위해 같은 승려 출신인 유협의 《문심조룡》을 좋아했을 것이다.

경문왕을 뒤이어 왕위에 오른 헌강왕은 불문에 심취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예 창작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말을 하기만 하면 변려체의 문장이 되어 마치 문장을 지어 놓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³⁾ 따라서 그도 경문왕처럼 불교 사상이 내포되어 있고 수려한 변려문으로 쓰인 《문심조룡》을 좋아했을 것이다.

최치원은 《문심조룡》과 관련된 또 하나의 문장을 남겼다. 904년(孝恭王 8; 天復 4) 무렵 그가 해인사 華嚴院에서 당나라 法藏和尚의 영적 활동을 기리고 해동의 화엄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唐大薦福寺故主翻經大德法藏和尚傳>(이하 <法藏和尚傳>으로 약칭함)을 지었다. <법장화상전>의 피전자인 法藏和尚은 당 高宗과 측천무후 시대에 활약한 고승이다. 훗날 동문인 신라 義湘에게 화엄의 妙旨를 논의하면서 해동 불교와 깊은 연분을 맺었다.

<법장화상전> 중 《문심조룡》과 관련된 부분을 옮겨보면:

傍호(言+互)訶者, 引《文心》云: “舊史所無, 我書則博”, 欲偉其事. ‘此訛濫之本源, 述遠之巨蠹也.’ 子無近之乎?”(亞細亞文化社本, 책2, 355쪽)

옆에서 비웃는 자가 《문심조룡》을 인용하며 말하기를 “옛 史書에도 없는 바를 내 글에서 널리 펼친다.’고 한 것은 그 일을 아름답게 하는 의도이다. ‘이것은 와전되고 잘못된 근원으로 멀리 기술함에 커다란 독이 된다.’고 하였는데, 그대는 이와 가깝지 않는지요?”

최치원이 법장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장문의 글을 적자, 옆에서 보는

3) <낭혜화상비>: 「太傅王雅善華言. 金玉音, 不患衆咻聒. 而能出口, 成儷語, 如宿構云.」(亞細亞文化社本, 책1, 84쪽)

이가 《문심조룡》의 구절을 인용하며 최치원의 문장이 번잡하다고 힐난을 가했다. 글이란 것은 간결함을 귀하게 여기는데, 어찌하여 장문의 글을 적어 말이 많아 어지럽게 하느냐? 옛 史書에도 없는 작법으로 자신의 글에 도입하여 크게 펼치는 것은 끝내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비록 그 일이 본래 아름답게 꾸미려는 의도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끝내 이러한 작법은 잘못된 근원으로 오히려 커다란 독이 된다.

옆에서 보는 이가 인용한 《문심조룡》 문구는 제16편 <史傳>에서 나온다.⁴⁾ 옆에서 보는 이가 실존 인물인지 가공의 인물인지 분명하지 않다. 최치원이 <법장화상전>을 지으면서 혹시 다른 이로부터 번잡하다는 말을 들을까봐 미리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입막음을 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어쨌든 간에 당시 신라 지식층 사이에는 《문심조룡》이 유포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옆에서 보는 이와 최치원 대화에서 《문심조룡》이 언급되었고, 경문왕과 낭혜무염의 대화에서도 《문심조룡》이 언급되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당시 신라 지식층 사이에는 《문심조룡》이 유포되었던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최치원은 해동한문학의 비자로 꼽고 있는 인물이다. 최치원의 문장은 당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훗날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 18세기 전후에 활약한 조선 문인 李德懋와 成海應이 있다. 이들은 각각 낭혜무염의 일생을 논하는 글에서 경문왕과 《문심조룡》을 애기한 내용을 담은 최치원의 <낭혜화상비>를 전록해놓았다.⁵⁾ 이와 같이 최치원이 지은 <낭혜화상비>나 <법장화상전>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문심조룡》이라는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소개되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4) 《문심조룡》 제16편 <史傳>: 「舊史所無, 我書則傳[孫云御覽作博], 此訛濫之本源, 而述遠之巨蠹也。」(學海出版社本, 쪽287) 자주 중 '孫'은 孫良蔚을 지칭함. 통용본 《문심조룡》은 '我書則傳'이라고 적었고, 《太平御覽》은 '我書則博'이라고 적었음. 최치원 <法藏和尚傳>은 《太平御覽》과 동일함.

5)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68 <寒竹堂涉筆> 중 <大朗慧>(韓國文集叢刊本, 책 259, 262쪽) 및 成海應 《研經齋全集》 권54 <草樹談獻> 중 <大朗慧·智證·慧昭>(韓國文集叢刊本, 책275, 123쪽) 참조.

지식층 인사들이 최치원 문장에서 《문심조룡》을 인용한 대목을 접했을 것이고, 특히 <낭해화상비>의 경우는 성주사의 앞마당에 세워진 비석인지라, 사찰에 머무는 화상이나 사찰을 예방한 지식층 인사들이 이 비문을 접할 기회가 많았을 것이다. 따라서 최치원 문장에 언급된 《문심조룡》도 제삼자 독자층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Ⅲ. 朝鮮시대 《文心雕龍》 流傳樣相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치원 이후부터 조선 전기까지 《문심조룡》을 언급한 한국 문헌을 찾지 못했다. 그렇다하더라도 이 시기에 《문심조룡》이 전혀 유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힘들다. 한중 양국은 예로부터 인적 왕래가 매우 빈번했고, 학술 교류도 매우 활발했다. 한국 사신들은 중국 대륙에서 많은 문헌들을 구득하여 한반도로 가져오곤 했다. 달리 말하자면 중국에서 유통된 문헌들이 빠른 속도로 한국으로 유입되었고, 특히 중국에서 널리 알려진 문헌이면 한국으로 유입되는 속도가 더욱 빨랐다. 《문심조룡》은 예로부터 많은 학자들에게 뛰어나 문학 이론서로 평가를 받고 있었다. 따라서 고려와 조선 전기에도 중국에서 유통된 《문심조룡》이 한국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정하여 불토 국가를 건설했다. 당시 조아에는 불사가 연이어 펼쳐졌고, 이와 더불어 불교 문헌이 대량 수집되고 유통되었다. 속칭 팔만대장경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탄생했다. 고려시대에는 변려문이 매우 성행했다. 조정의 공문은 말할 것도 없고, 문인들이 짓는 문장도 변려문이 많았다. 앞서 논했듯이 신라 시대에 《문심조룡》이 유통된 과정에는 불교와 변려문이 깊은 작용을 하고 있다. 고려 국왕이나 문인들이 신라 시대의 경우처럼 《문심조룡》에 보이는 불교 사유나 변려문 특징에 관심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 전기에 중국 문헌이 한반도에서 유통되거나 간행된 사례들이 비일비재할 정도로 매우 많다. 비록 이 시기

에 《문심조룡》이 간행되었다는 기록은 찾지 못했지만, 당시 문단의 풍토로 보아 문인들이 중국의 대표적인 문학 이론서인 《문심조룡》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동기는 가지고 있었다.

어쨌든 간에 현존 자료에는 17세기 초가 되어서야 《문심조룡》이 다시 출현하게 된다. 《芝峯類說》은 1614년(광해군 6)에 李睟光이 편찬한 백과사전식의 類書이다. 이 책자 권8 <文章部> 중 <文體>에서:

劉勰曰: 漢劉歆移太常, 此移文之所起也. 孔德璋北山移文, 倣此.(KRpia 本, 원본 권8, 8A)

유희이 말하기를 한 劉歆이 <移太常博士書>를 지었는데, 이것이 移文이 생긴 바이다. 德璋 孔稚圭의 <北山移文>은 이것을 모방했다.

이수광은 여러 문체의 특징과 유래를 분석하면서 移文의 유래에 대해 언급했다. 移文은 다른 사람에게 돌려보내는 글이다. 유희의 말은 《문심조룡》 제20 <檄移>에서 나왔다.⁶⁾ 이문은 옮기는 뜻을 가졌으며, 司馬相如의 <難蜀父老>가 이문의 기틀을 잡았고, 劉歆의 <移太常博士書>가 이문의 시초라고 했다. 이수광은 孔稚圭의 <北山移文>이 유희의 <移太常博士書>를 모방했다고 했다.

이수광은 임진란 전후로 세 차례 연경(북경)에 다녀왔다. 그는 연경에서 머물고 있을 때 중국 문물을 직접 체득하고, 많은 중국과 외국 인사들과 교류했으며, 특히 많은 문헌들을 수집하여 국내로 반입해왔다. 이때 수입한 문헌은 곧이어 편찬한 《지봉유설》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가 유희의 《문심조룡》을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으나, 아마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국에서 《문심조룡》을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다.

張維는 이수광 사후에 편찬한 《芝峯集》의 서문을 지었다. 그는 이수

6) 《문심조룡》 제20편 <檄移>: 「移者, 易也. 移風易俗, 令往而民隨者也. 相如之 <難蜀老>, 文曉而喻博, 有移檄之骨焉. 及劉歆之 <移太常>, 辭剛而義辨, 文移之首也.」(學海出版社本, 379쪽)

광의 문장을 논평하는 과정에서 문장에서의 예술 발전은 계속해나간다는 취지를 남겼다.⁷⁾ 이 말은 《문심조룡》 <徵聖>에서 顏闔이 공자가 날개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화려한 말을 수식한 것이라는 의미나 <序志>에서 후세 사람들이 문장을 화려하게 꾸민다는 추세와 일맥상통하다.⁸⁾

任叔英은 이수광과 동시대에 활약했던 문인이다. 그는 일찍이 7백 운에 달하는 長詩를 지었다. 상공 柳根이 이 시를 칭송하는 시를 지어 임숙영에게 주자, 임숙영은 여기에 감사하는 啓를 올렸다. 이 계에서 左思의 賦는 杜武로부터 칭송을 받았고, 유험의 책은 沈約으로부터 讚賞을 입었다고 했다.⁹⁾ 또 임숙영은 절친한 우인인 趙纘韓에게 서찰을 보내면서 고급 문장을 논평했다. 그는 재주가 沈約과 같지 않으나 유험의 책을 알고 있다고 했다.¹⁰⁾

18세기 전후하여 조선 문헌에 《문심조룡》이 대대적으로 출현한다. 영·정조 시대는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불릴 정도로 태평성대를 구사했고, 순조 시대에 들어와서도 성세의 여파가 계속 미치고 있었다. 이 시기는 주로 사신들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다양한 문화와 문헌이 도입되고, 경향 인사들은 외국 문화와 문헌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았다. 《문심조룡》은 바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군신들 사이에 널리 읽혀졌다.

정조는 왕정체제를 대폭 강화하며 모든 개혁을 주도적으로 처리했고, 소위 문체반정이라는 정책을 공포하여 醇正한 사상과 문학의 진작에 힘을

- 7) 《谿谷先生集》 권7 <芝峯集序>: 「夫文章亦藝也, 世固有飾羽而畫, 以樞蠟自售者矣。」(韓國文集叢刊本, 책92, 121쪽)
- 8) 《문심조룡》 제2편 <徵聖>: 「顏闔以爲仲尼飾羽而畫, 徒事華辭。」(學海出版社本, 16쪽)
동서 제50편 <序志>: 「而去聖久遠, 文體解散, 辭人愛奇, 言貴浮詭, 飾羽尙畫, 文繡鞶帨, 離本彌甚, 將遂訛濫。」(學海出版社本, 726쪽)
- 9) 《疏菴先生集》 권6 <上西峒柳相公根謝賜詩啓>: 「伏承閣下相公覽鄙製七百韻, 至賜詩稱贊者. 昔左思之賦, 蒙杜武之褒; 劉勰之書, 被休文之賞。」(韓國文集叢刊本, 책83, 465쪽)
- 10) 《疏菴先生集》 권6 <回趙玄洲纘韓啓>: 「才非沈約, 尙稱劉勰之書。」(韓國文集叢刊本, 책83, 464쪽)

쏟았다. 당시 문단에는 새로운 기운이 일어나 참신한 문장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정조는 이러한 문장을 패관소설이나 소품, 의고문체에서 나온 잡문체로 규정하고 黃景源, 李福源 등 정통적인 문장을 진범으로 삼아 醇正古文으로 회복하고자 했다. 정조가 閣臣 尹行恉과 토론하면서 육조문학과 《문심조룡》에 대해 논평을 한 바가 있다. 《弘齋全書》 권162 <日得錄·文學>에서:

六朝人不識文體，浮靡纖麗，輕佻噍殺，無皇雋爾雅底氣味，但劉勰《文心雕龍》能裁擇於羣言，咀啜於理趣，有非當時時樣。(文化財管理局藏書閣本, 책 4, 748쪽)

육조 사람들은 문체를 알지 못했으니, 경박함으로 내몰아 섬약 화려하고, 가볍고 방정 받아 경솔 천박하여 도무지 훌륭하고 성대하고 바르고 우아한 맛이 없다. 다만 유희의 《文心雕龍》만은羣言을 헤아려 택하고 理趣를 음미하여 당시 풍조와 같지 않은 점이 있다.

육조시대에 유행했던 문체는 변려문이다. 변려문은 4자와 6자를 기본으로 하는 대구로 이루어져 아름다운 미감을 주어 육조 문인들로부터 널리 애용되었지만, 고정적인 형식에 치닫고 과도한 수사주의 경향으로 후세 사람으로부터 공허하고 부박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오고 있다. 정조는 육조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체가 醇正古文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을 가했으나, 유독 《문심조룡》에 대해서만 여러 사람들의 이론을 올바르게 취사선택했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취지를 음미할 수 있어 육조 사람들의 유행하던 풍조와 완전히 다르다고 호평을 가했다.

정조는 奎章閣을 설치하고 자주 각신들과 함께 왕정 강화와 학문 발전에 힘을 쏟았다. 李德懋는 정조에 의해 발탁되어 규장각 檢書官이 되었다. 1792년(정조 16)에 규장각 문사들이 새로운 운서인 《奎章全韻》의 초고를 마치자, 정조는 이들에게 책자를 다시 교정하도록 명했다. 이때 규장각에 직·간접으로 몸담고 있는 尹行恉, 徐榮輔, 南公轍, 李書九, 李家煥, 成大中, 柳得恭, 朴齊家, 이덕무 등은 문자의 생성과정을 논한 對策을 작성

했다.¹¹⁾ 이 대책에 《문심조룡》을 인용한 문구가 들어가 있다. 《靑莊館全書》 권20 <雅亭遺稿> 중 <六書策>에서:

“文象遞于結繩，鳥跡代乎書契。”此是劉勰《雕龍》之言，而敷衍易繫及書序者也。(韓國文集叢刊本, 책257, 289쪽)

文象이 결승 문자를 대신하고, 새 발자국이 書契로 바뀌었다. 이것은 유협의 《문심조룡》의 말인데, 《周易》 <繫辭>와 《書經》 서문을 부연한 것입니다.

《문심조룡》 구절은 제39편 <練字>에서 나왔다.¹²⁾ 유협은 문자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대해 논하면서 사람들이 새의 발자국에서 착안하여 문자를 만들자 그동안 행해오던 결승문자의 불편함이 해소되었다고 했다. 문장은 기본 원소인 문자에서 발전된 것이다. 문인들은 문자의 특징을 잘 파악하여 문장의 묘미를 살려낸다. 이덕무를 비롯한 규장각 사람들은 《문심조룡》의 말을 인용하며 문자의 생성과 발전에 대해 논하였다. 이들이 對策에 인용했던 문헌들을 조사해보면 전통 고전인 사서오경과 문자학의 기초서인 《說文解字》 외에 육조에 만들어진 《문심조룡》이 포함되어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규장각 사람들이 《문심조룡》을 전통 고전과 문자학의 기초서에 함께 나열할 정도로 중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조가 규장각을 설치하고 어제 서적들을 보관하고 많은 서적들을 간행하였다. 이번 對策에 참여한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는 규장각 검서관 출신이다. 이들은 연행사신의 일원으로 여러 차례 연경(북경)을 갔다 왔고, 서점가인 유리창을 자주 들러 서적들을 구매해왔다. 규장각과 그 부대 건

11) 《靑莊館全書》 권20 <雅亭遺稿> 중 <六書策> 자주: 「王子八月, 命公編纂《奎章全韻》, 書既成, 命閣臣尹行恁, 徐榮輔, 南公轍, 承旨李書九, 李家煥, 校書校理成大中, 檢書官柳得恭, 朴齊家校正, 仍命諸臣對策。」(韓國文集叢刊本, 책257, 286쪽)

12) 《문심조룡》 제39편 <練字>: 「夫文象列而結繩移, 鳥跡明而書契作. 斯乃言語之體貌, 而文章之宅宇也。」(學海出版社本, 623쪽)

물에는 당시 조선 사신들이 중국에서 구입해온 서적들로 가득 찼다. 오늘날 규장각에는 예부터 전해오는 《漢魏叢書》(奎中 3713본, 奎中 4686본)와 《廣漢魏叢書》(奎中3713본, 奎中4181본, 奎中4686본) 등이 소장되어 있다. 이들 총서에는 《문심조룡》이 포함되어있다. 奎中 3713본 《漢魏叢書》에는 고종의 장서각인 “集玉齋” 인장이 찍혀있다. 정조와 규장각 사람들이 인용한 《문심조룡》이 이들 총서본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후대 왕실이나 조정 관원들이 이들 총서본을 통해 《문심조룡》을 접했던 사실을 간접적이거나 감지할 수 있다.

이덕무는 평소 독서를 하다가 보고 들었거나 습득한 내용을 <耳目口心書>에 담았다. <이목구심서>에는 《문심조룡》 구절을 읽어보고 자신의 느낀 점을 담아놓은 곳이 3군데 있다. 이 중에 한 군데를 들어본다. 《청장관전서》 권53 <耳目口心書>에서:

《文心雕龍》曰: “身與時舛, 志共道申, 標心於萬古之上, 而送懷於千載之下, 金石靡矣, 聲其銷乎.” 余則以爲窮人多著書, 而窮之又窮者, 書亦不傳. 然而其所著嘉惠後人, 得遇知音, 則窮中有通者也. 若或長受後世之唾罵, 則此天下之至窮也. 然則著書不傳者, 窮之又窮之中, 又有通焉者也.(韓國文集叢刊本, 책258, 473쪽)

《문심조룡》에서 말하기를 “몸은 시대와 어긋하지만, 뜻은 도와 함께 펴서 마음을 위로 만고에 세우고, 회포는 아래로 천년에 전한다면, 금석이 부스러진다한들 소리가 없어지겠는가?” 나는 궁한 자가 저술이 많으나, 궁하고 또 궁한 자는 저술도 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저술한 글이 후대에게 혜택을 베풀어知音을 만난다면 궁한 속에서 통하는 것이 있다. 혹시 만약 후대에 침 뱉고 욕을 먹는다면 천하에 지극히 궁한 것이다. 그렇다면 저술을 전하지 않는 것은 궁하고 또 궁한 가운데에서도 통하는 바가 있다.

《문심조룡》 구절은 제17편 <諸子>에서 따왔다.¹³⁾ 여기에서 유희은 문

13) 《문심조룡》 제17편 <諸子> 참조(學海出版社本, 310쪽)

장의 영원성과 문인의 자세에 대해 논했다. 제자 문장은 시대에 따라 변화를 겪으며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다. 문인들은 때로 시대를 잘못 타고나서 곤경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자신의 뜻을 소신껏 남긴 문장은 시공을 초월하여 오랫동안 전할 수 있다. 따라서 문인들은 당장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을 생각하지 말고, 머나먼 세월 후에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금석이 부스러질 오랜 세월 후에도 문장이 인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다.

이덕무는 유희의 말을 빌려 문장의 영원성을 강조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은근히 내비쳤다. 생존 당시에 시대와 어긋난 궁한 문인들을 보면 저술을 많이 남겨 놓았다. 이들이 남긴 저술은 비록 당대에는 빛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후세에知音을 만나 자신이 펼치고 하던 뜻을 알아준다면 궁한 속에서도 그 통함을 얻게 된다. 만약 저술에서 시대 상황에 얽매어서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해 후대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을 한다면 더욱더 궁하게 된다. 이덕무는 서출 출신이라 출사함에 있어 결코 순탄하지 못한 길을 걸어야만 했다. 조선의 관료 범규는 서출 양반에 대해 일정 이상의 관직을 나가지 못하게 했다. 그는 한때 정조의 특별한 발탁으로 규장각 검서관이 되었지만, 주변 사대부들의 곱지 않는 시선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후의 관직 생활도 다른 정실 출신의 양반과 달리 순탄하지는 못했다. 게다가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못해 궁한 선비와 같은 생활을 해야만 했다.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문장 창작에 있어 훗날 자신의 뜻을 알아주는 이가 있다며 마음을 가다듬고 모든 공력을 경주하며 부단히 정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가짐도 가끔 흔들릴 때가 있었다. 이덕무는 유희이 지혜의 출중함과 문장의 불멸성을 기술한 《문심조룡》 구절(제50편 <序志>)에서 자신의 문장이 수천 년이 가더라도 아득히 끝이 없는 천지의 세월에 비한다면 그저 모기떼가 윙윙거리며 벽사의 휘장을 잠깐 스쳐 가는 데에 불과하다며 저술의 유한성에 대해 고민에 빠져들기도 했다.¹⁴⁾ 또 그는 《문심조룡》 <物色>(제46편)의 끝 부분에 부착된 贊이 진부한 문사들

이 미칠 수 없는 경지를 언급한 것이라며 일찍부터 찬을 매우 좋아했다.¹⁵⁾ 찬을 지을 때에는 情과 景이 융합되어야 한다. 문인은 자연 자체가 가지고 있는 情態를 포착하여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옮겨야 정경이 절묘하게 융합된 문장을 창출하게 되는데, 유희의 찬이 바로 이러한 경지를 절묘하게 창출한 작품이라고 하겠다.

姜彝天은 安山 출신의 재야 문인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문학적 재능을 인정받아 장래가 촉망되었으나, 당시 격동하는 지성 사회 속에서 문체와 사상에 반하는 인물로 꼽히고, 정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끝내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하였다. 그의 문집인 《重菴集》은 규장각과 안산 후손 집에 각 1질씩 소장되어있다. 이 책자에는 그가 《문심조룡》을 읽고 느낀 점을 적은 문장이 수록되어있다. 《重菴集》 제5 <雜著·讀文心雕龍>에서:

文自天地生, 既有文矣, 不得不有其法. 法之所具, 而妙以之生, 文非妙不稱, 妙非文不宣. 妙也者, 固已森布於天地之間, 無可以窮既之矣. 聖神之作, 闔博之旨, 觸境而感情, 引情而成法, 依法而生妙, 有莫之然而然者, 有不自知其所以然而然者. 天地以是妙而憑於人以宣, 雖聖人無所與, 又況於文藻之倫乎? 是故隱而不章, 其奧也; 明而可跡, 其顯也, 奧顯之用, 神通之機, 存乎人而已矣. 擬作之法, 始自中古, 亦必精窮力探之久, 有得於中而發之乎辭, 而后爲可追作者之軌以自成一家之則, 豈但在乎辭章字句之間而止耳乎? 大抵制文之法而發天地之妙者, 前人之功也. 因前人之法而成文之妙者, 後人之事也. 苟欲能此, 非精窮力探之久, 有不可得者, 其下材則又有駸駸自入乎綺繪俳優之不自知救. 自劉勰《文心雕龍》之書作, 而洞察乎情志之蘊指, 能悉乎引伸之微旨, 於是乎其所云天地之妙者, 亦已呈現之無餘. 夫使下材者, 亦有以知

- 14) 《靑莊館全書》 권53 <耳目口心書>: 「又曰: “宇宙綿邈, 黎獻紛襍, 拔萃出類, 智術而已. 歲月飄忽, 性靈不居, 騰聲飛實, 制作而已.” 余則以爲雖幸而傳數千年, 以天地之大季論之, 不過蚊雷之度碧紗幮耳,」(韓國文集叢刊本, 책258, 473쪽) 《문심조룡》 문구는 제50편 <序志> 참조(學海出版社本, 725쪽)
- 15) 《靑莊館全書》 권53 <耳目口心書>: 「文心雕龍曰: “山沓水匝, 樹襍雲合. 目既往還, 心亦吐納. 春日遲遲, 秋風颯颯. 情往似贈, 興來如答.” 妙解爲文處, 匪陳文腐士所可及. 余嘗愛此言也,」(韓國文集叢刊本, 책258, 473쪽) 《문심조룡》 문구는 제46편 <物色> 참조(學海出版社本, 695쪽)

古人之文爲有法，得其用力之方者，《文心》能之也。若乃開其聖路，立其繩律，則士之其能求之於古，反之於己，于以可與於天地之妙者又不可復見也。《文心》者，其於文苑功與過，蓋有不得以相掩之矣。余於其文辭雕飾精切所言者古文，而文不能自拔於六朝之頹塵，有違孔氏言之訓，不暇論，或破其不可破之細，形其不可形之隱，爲能構心靈於作者，覈窮變於累代，及其幽深也，始有鑽研之苦，終有渙川之樂。(奎11612本，冊利)

문은 천지가 생겨난 때로부터 이미 문이 있었기에 그 법이 없을 수 없다. 법이 갖추어지면 妙함이 이로써 생겨난다. 문은 묘함이 아니면 칭할 수가 없고, 묘는 문이 아니면 밝혀나지 않는다. 묘라는 것은 진실로 이미 천지 사이에 널리 퍼져있기에 이를 다할 수가 없다.

거룩한 성인의 글과 크고 넓은 요지는 境에 닿아 情이 일어나고, 정을 이끌어 법을 만들며, 법에 의거하여 묘가 생겨나니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다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을 그렇다고 하는 소이를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천지는 이러한 묘로서 사람에게 기대어 밝혀지니, 비록 성인이 부여한 바가 없지만, 또 하물며 文藻의 무리에 있어서야? 이런 고로 은미하고 들어내지 않는 것이 오묘함이고, 명확하고 흔적을 남긴 것이 나타남이다. 오묘하고 들어내는 작용과神通한 기틀은 사람에게만 갖추고 있을 뿐이다.

홍내내는 법은 中古시대부터 비롯되었으나 또한 반드시 오랫동안 자세히 궁하고 힘써 탐구하며, 마음속에 얻어 文辭에 發出한 연후에야 작자의 법도를 따라 스스로 一家의 법칙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어찌 다만 문장과 자구 사이에만 그칠 것인가? 대저 문장 짓는 법을 만들어 천지의 묘를 발하는 것은 옛 사람의 공이고, 옛 사람의 법으로 인하여 문장의 묘를 완성하는 것은 뒷사람의 일이다. 진실로 이에 능하고자 한다면 오랫동안 자세히 궁구하고 힘써 탐구하지 않는다면 얻을 수 없을 것이다. 下材의 사람들은 駸駸하여 저절로 아로새기고 광대짓하는 것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

유협의 《문심조룡》이 지어진 때로부터 情志의 도의를 통찰하고, 은미한 뜻을 모두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로써 이른바 천지의 묘함 역시 남김 없이 드러났다. 대저 下材로 하여금 또한 옛 사람의 문장에 법이 있으며, 힘을 쓸 방법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니, 《문심조룡》이 그것을 할 수 있다. 만약 선형의 길을 열고 규거를 세운다면 선비는 능히 옛 것에서 구하여 자기에게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천지의 묘에 있어 또한 다

시 드러낼 수 없다. 《문심조룡》은 文苑에 공과 과에 있어서 대개 서로 엄폐할 수 없다. 나는 그 文辭에 있어서 너무 정교하게 아로새겨서 꾸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바 古文이란 육조시대의 퇴락한 먼지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했으며 孔子 언행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점이 있어서 논의할 겨를이 없다고 생각한다. 간혹 깨뜨릴 수 없는 미세한 부분을 깨뜨렸고, 드러낼 수 없는 은미한 것을 드러내어, 작자에게 마음에 맞도록 하여 누대에 변화를 끝까지 궁구하도록 했다. 그윽하고 깊은 것에 이르면, 처음에는 연마의 괴로움이 있겠지만, 끝내 渙川의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강이천의 문학성향은 정조의 문체반정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강이천은 패사소품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으나, 정조는 패사소품의 유행을 경계했다. 정조는 강이천을 정책에 반하는 인물로 낙인찍어 출사의 길을 막았다. 강이천은 정조 사후에 時僻의 정쟁에 휘말려 邪學에 연루되었다는 죄목으로 처형당했다. 강이천이나 정조는 비록 각자 가는 길이 달랐으나, 유독 《문심조룡》에 대해서만 모두 문을 짓는 좋은 교범 책이라며 호평을 가했다.

상기 문장에서 처음부터 문이라는 것이 천지가 생긴 시점부터 삼라만상에 모두 존재한다며 유구함과 보편성을 강조했다. ‘문’·‘법’·‘묘’, 즉 이 세 가지는 상호작용을 한다. 문에는 법이 있어야 하고, 법이 갖추어지면 묘가 생겨나고, 묘는 문에게 활발한 생명력을 불어준다. 문의 묘를 밝히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이다. 사람은 문이 가지고 있는 은미하고 오묘함을 명확하게 들어낼 수가 있다. 문의 묘는 사람에게 기대어야만 이 세상에 드러낼 수가 있다.

명나라 李夢陽, 李攀龍, 王世貞을 비롯한 前後七子에 의해 문은 진한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고적 문풍이 크게 성행했고, 조선 중엽에 전후칠자의 이론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한때 유행하기도 했다. 전후칠자의 의고문풍은 얼마 있지 않아 개성적인 창작을 중요시하는 竟陵派와 公安派가 출현하면서 비판을 받게 되었고, 임진란 이후부터 그 시대와 문장에 맞는 創新을 중시하는 許筠, 張維 등이 속출하면서 개성적인 작풍이 불기 시작했다.

다. 그 후 金昌業, 朴趾源 등이 범고창신의 정신을 계속 이어갔고, 강이천도 이 계열에 속해있다. 강이천은 사람들이 문을 짓는 데에 있어 法古創新의 개념을 도입해야한다고 여겼다. 상기 문장에서 의고 작법은 이미 중고시대에서 비롯되었으나, 반드시 오랫동안 궁하고 탐구하여 마음속으로 文辭의 법도를 터득한 후에 스스로 일가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면 기교와 미학을 증시하는 육조시대의 문장일지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법도를 고찰한다면 좋은 문장을 창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고 개성적인 내용과 기교적이고 수사적인 작법을 골고루 어울리는데 온갖 노력을 경주했다.

그러나 下材의 사람들은 비록 힘껏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올바르게 들어가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유희의 《문심조룡》은 바로 이러한 것을 도와주는 좋은 교범 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심조룡》은 문이 가지고 있는 도의를 통찰하여 천지에 들어내었다. 간혹 깨뜨릴 수 없는 아주 미세한 부분을 깨뜨리고, 드러낼 수 없는 은미함을 드러내었다. 또한 《문심조룡》은 전대 文苑의 功過를 가릴 것 없이 밝혀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누대의 변화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하였다. 초심자나 下材들은 《문심조룡》이 기술해놓은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연마하면 그윽하고 깊은 곳까지 이룰 수가 있게 된다. 후세 사람들이 선행자가 열어준 길을 공구한다면 그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뜻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이것들을 자신의 문장 속에 융합시킨다면 스스로 하나의 일가들을 이룰 수 있다. 처음에는 연마하는 고통이 끊임없이 일어나겠지만, 끝내 찬란한 문장을 창출할 수 있는 渙川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俞漢雋은 정조·순조대 활약한 문인이다. 하루는 가요의 근원을 논하였다. 그의 논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의 六情은 六氣에서 감발하여 四時에 따라 움직이며 강하고 부드러움이 번갈아 작용하며 희로애락이 수시로 바뀐다. 뜻이 안에서 움직여서 詠으로 표출되며, 詠이 밖으로 발하여 소리를 이루는 것이 시의 原道이다. 역대적으로 문인들이 잇달아 나타

나 어깨를 나란히 하며 노래를 불렀다. 유희는 《문심조룡》에서 문학 이론과 옛 사람들의 흔적을 세세하게 쪼개고, 鍾嶸은 《詩品》에서 가지런하게 섞어놓았다. 비록 이들의 논지가 간혹 섬약하고 막힘이 있지만, 그 커다란 요지는 남김없이 다루었다고 하겠다.¹⁶⁾

정약용은 정조·순조 때 활약한 실학자이다. 그는 사서오경의 古今注를 종합하여 새로운 풀이에 힘을 쏟았다. 그는 공자가 이단을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이 해로울 뿐이라는 대목에서 옛 기록들을 인용했는데, 이 중에 유희의 《문심조룡》 문구가 포함되어있다. 《與猶堂全書》 제2집 권7 《論語古今注》 <爲政下> 중 “子曰攻乎異端，斯害也已”조에서:

劉勰《文心雕龍》<序>云: “周公設辨，貴乎體要。尼父陳訓，惡乎異端。”
按此諸文，漢晉先儒，不以異端爲楊墨佛老之類。(韓國文集叢刊本，책282, 170쪽)

劉勰 《文心雕龍》 <序志>에서 말하기를 “주공은 논변을 가하면서, 요체를 귀중하게 여겼고, 공자는 가르침을 펼치면서 이단을 싫어해야 한다.” 이러한 문장에서 漢·晉 先儒들이 이단을 楊墨佛老의 무리로 해석하지 않았다.

《문심조룡》 <序志>는 유희가 이 책에서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총괄해서 설명한 편장이다. 상기 글에서 정약용은 공자가 말하는 이단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 집중적으로 풀이했다. 《문심조룡》 <서지>, 《韓詩外傳》, 명 吳嘉謨의 《孔聖家語圖》 등 여러 문헌에서 말하는 내용을 종합해보면, 공자가 말하는 이단은 후대에서 말하는 楊墨佛老의 무리가 아니라는 결론을 이끌어내었다. 《문심조룡》 <서지>에는 “《周書》論辭，貴乎體要”

16) 俞漢雋 《自著》 권3 <歌謠四言序>: 「夫人有六情，稟五常之秀，情感六氣，順四時之序，剛柔互用，喜怒隨異，志動於中而言之歌詠外宣，詠發於外而聲之飛內具，斯固詩之原道，而藝圃之恒則也。是以列代以還，振響者踵接，颺藻者肩比，莫不整始於前達，奮末於季運。適今視昔，咸有可稽，而原始反終，不可誣矣。所以劉勰劈細於《文心》，鍾嶸齊紛於《詩品》，雖見或纖滯，論有牴牾，振其大綱，斯已盡矣。」(韓國文集叢刊本，책249, 38쪽)

라고 했는데,¹⁷⁾ 상기 글에는 “周公設辨, 貴乎體要”라고 했다. 이러한 글자 차이는 판본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정약용이 《상서》 <周書>를周公이 풀이했던 데에서 나왔다.

19세기에 들어와서도 조선 문단에 《문심조룡》이 계속 유통되고 있었다.金正喜는 조선 헌종·철종 연간에 활약한 문신이다. 금석학과 경학에 일가견이 있고, 추사체라는 새로운 서체를 창출했다. 실사구시를 주장하며, 청나라 문사들과 교유가 깊었다. 하루는 李復鉉(石見)의 吟詩處에 나가 上樑文을 작성했는데, 여기에 유협의 《문심조룡》을 활용한 평어가 보인다. 《阮堂全集》 권6 <題李石見吟詩處上樑文後>에서:

靑與赤¹⁸⁾, 謂之文; 赤與白, 謂之章. 文章之始起, 而駢體之所本也. 昭明勤選, 範此規模; 彥和著書, 傳茲科律.(韓國文集叢刊本, 책301, 119쪽)

靑과 赤은 문이라 부르고, 赤과 白은 章이라 부른다. 文章의 시작은 駢體의 근본이 되는 바이다. 昭明太子가 부지런히 선록하여 규범으로 삼았고, 彥和 劉鏞은 저술하여 이 科律을 전했다.

이 글은 문장의 조화와 작법에 대해 논했다. 이 세상에는 만물을 만들어 내는 상반된 성질의 두 가지 요소가 존재한다. 문은 청과 적으로 이루어졌고, 장은 적과 백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의 색깔 이론은 음양오행설에서 나왔다. 문과 장이 균형을 이뤄야 올바른 문장이 탄생하게 된다. 문장의 시작은 바로 변려체의 근본처럼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데 있다. 昭明太子는 《文選》을 편집하여 문장 선집의 모범이 되었고, 유협은 《문심조룡》을 저술하여 문장의 법도를 후세에 전했다.

또 김정희는 어떤 사람의 詩卷을 제하는 문장에서 《문심조룡》 <明詩>의 취지를 활용했다. 옛 사람들은 법도에 맞는 시가를 읊었으나, 후세에

17) 《문심조룡》 제50편 <序志>: 「蓋《周書》論辭, 貴乎體要; 尼父陳訓, 惡乎異端. 辭訓之異, 宜體於要. 於是擲筆和墨, 乃始論文.」(學海出版社本, 726쪽)

18) 《阮堂全集》 원본 ‘靑與白’은 ‘靑與赤’의 오류임.(민족추진위원회국역본, 부록 원본 89쪽)

이러한 사람들은 이것들을 누추하다 여기고 새로운 작법에만 경도하였다. 후세 사람들은 문장에 있어 외양을 화려하게 다듬는데 익숙하고, 제재를 취함에 있어서도 조심성을 잃어버렸다. 이들이 각자 자신의 기치를 내세우고 작법을 전파시키고 있으나, 모두가 정통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揚雄은 이러한 것에 대해 小道라고 비웃었고, 유협은 《문심조룡》 <明詩>를 작성하여 급하게 옳고 그름을 따졌다.¹⁹⁾

李圭景은 현종·철종 연간에 평소 조부 이덕무가 이룩한 실학을 계승하며 집대성하는데 전념한 재야 문인이다. 《五洲衍文長箋散稿》는 당시 조선과 중국에 전해온 수백 종 문헌들을 섭렵하고 고급 사물에 대해 考訂辨證한 책자이다. 이규경은 유협의 생애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이 책자의 범패를 논하는 대목에서 관료 생활을 하다가 훗날 승려가 된 인물로 양 유협을 꼽고 있다.²⁰⁾ 유협은 일찍이 步兵校尉, 宮中通事舍人 등 관직을 지냈다가 만년에 출가하여 南京 定林寺에서 승려생활을 했다.

李裕元은 고종 연간에 활약한 문신이다. 그는 고종 초기에 평소 틈틈이 찰기해놓은 것을 정리하여 《林下筆記》라는 책자를 편찬했다. 이 책자에는 《문심조룡》이 다량으로 인용되어있는데, 특히 각종 문체의 특징을 언급한 <瓊田花市編>에 집중되어있다. 예를 들면 <四言古詩>에서 유협이 단아하고 윤택한 맛이 있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말을 인용했고, <五言古詩>에서 오언시는 파생된 양식으로 청신하고 미려함을 주된 특성으로 삼는다는 말을 인용했다.²¹⁾ 이 책자에서 언급한 유협 말은 모두 《문심조룡》 제6 <明詩>에서 수록되어있다.²²⁾

19) 《阮堂全集》 권6 <題或人詩卷>: 「陋厥古規, 靡于新韻, 裂錦爲華, 惟工雕鏤, 取材失慎, 鄙于俳優, 戶執寸篇, 家傳百筭, 揚雄是以有小道之嗤, 劉勰是以急明詩之辨也。」(韓國文集叢刊本, 책301, 124쪽)

20) 《五洲衍文長箋散稿》 권39 <釋典類·梵唄>: 「先仕宦, 后削髮爲僧者, 南齊劉勰。」(明文堂本, 책하, 243쪽)

21) 《林下筆記》 권2 <瓊田花市編> 중 <四言古詩>: 「其正體, 則梁劉勰所謂以雅潤爲本者也。」(大東文化研究院本, 35쪽)

동서 <五言古詩>: 「論其體, 則劉勰所云“五言流調, 清麗居宗”者是也。」(大東文化研究院本, 37쪽)

이밖에 조선 문헌에는 간혹 다른 사람들이 인용한 《문심조룡》의 대목을 재인용한 곳이 있다. 정약용과 成海應은 각각 《여유당전서》 <尙書序>와 《연경재전집외집》 <逸書>에서 《尙書》가 七觀을 전시켰다는 《문심조룡》의 문구, 공자의 논평, 《孔叢子》의 해석 등을 열거하면서 풀이한 바가 있다.²³⁾ 《문심조룡》의 문구는 정약용과 성해응이 《문심조룡》 <宗經>에서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니고, 송 王應麟이 《困學紀聞》이 언급한 내용을 재인용했다. 또 성해응은 <成伯瓚四家詩說>에서 당 成伯瓚의 《毛詩指說》을 분석하면서 유희 《문심조룡》의 체제와 비슷하다고 했다.²⁴⁾ 그러나 이 대목도 성해응이 《모시지설》과 《문심조룡》을 직접 비교한 말이 아니고,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 《모시지설》을 해제한 내용을 전제했다. 또 이규경은 《오주연문장전산고》 중 각종 韻書を 변증한 대목에서 顧炎武가 《문심조룡》을 인용한 문구를 수록했다. 다른 음을 조화롭게 배합하는 것을 和라고 a하고, 같은 음을 알맞게 호응하는 것을 韻이며, 또한 급하게 내는 소리는 宮音에 맞추고, 서서히 내는 소리는 徵音에 맞춘다고 했다.²⁵⁾ 이 문구는 《문심조룡》 제33편 <聲律>에서 나왔다.

22) 《문심조룡》 제6 <明詩>: 「若夫四言正體, 則雅潤爲本. 五言流調, 則清麗居宗。」(學海出版社本, 67쪽)

23) 丁若鏞 《與猶堂全書》 제2집 권21 <經集·尙書序>: 「<書大傳>云: 書標七觀. 孔子曰: 六誓可以觀義, …… 堯典可以觀美. 見《文心雕龍》. 孔叢子云: 帝典觀美, 大禹謨禹貢觀事, 皐陶謨益稷觀政, 秦誓觀義. 王應麟《考異》. 鏞案: 造梅書者, 仍造孔叢子, 昭昭然也。」(韓國文集叢刊本, 책283, 6쪽)

成海應 《研經齋全集外集》 卷五 <經易書類·逸書>: 「又曰: 《文心雕龍》云: 書標七觀, 孔子曰: 六誓可以觀義, 五誥可以觀仁, …… 見大傳」 자주: 「孔叢子云: 帝典觀美, 大禹謨禹貢觀事, 皐陶謨益稷觀政, 秦誓觀義, 此其大異者也。」(韓國文集叢刊本, 책275, 364쪽)

24) 《研經齋全集外集》 권8 <經易書類·成伯瓚四家詩說>: 「伯瓚唐時人, 其爵里無考, 著《毛詩指說》四篇. 一曰興述, …… 皆學而詳之. 頗似劉氏文心雕龍之體, 蓋說經之餘論也。」(韓國文集叢刊本, 책275, 411쪽)

25)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3 <韻書辨證說一>: 「顧炎武曰: …… 而劉勰《文心雕龍》謂疾呼中宮, 徐呼中徵。」(明文堂本, 책상, 135쪽)

이와 달리 조선 문헌에는 유협이 저자로 잘못 알려진 《新論》이 인용된 경우가 있다. 17세기 중반에 편찬된 李瀾의 《星湖僿說》이 있다. 《성호사설》은 원래 이익이 평소 학문을 대하면서 생각나는 것을 찰기해 놓은 것과 제자들과 토론한 내용을 기록해놓은 것을 집안 조카들이 정리한 책이다. 이 책자에 유협의 《신론》 구절을 가끔 인용하거나 다른 사례를 고증하는데 활용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²⁶⁾ 《신론》은 《劉子新論》, 《劉子》, 《流子》, 《德音》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저자에 대해서는 유협 외에 劉盡, 劉歆, 劉孝標 등 여러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오늘날 최소한 저자가 유협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익은 《신론》의 저자를 유협으로 알고 있었다.

IV. 結 論

오늘날 국내외 많은 학자들과 학술 세미나에서 劉勰의 《文心雕龍》을 다루고 있을 정도로 연구열이 실로 대단하다. 《문심조룡》은 일찍이 동쪽 한반도 지역으로 흘러 들어와 한국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신라시대부터 조선 말기까지 《문심조룡》이 어떻게 유통되고 애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문심조룡》 이름이 가장 빨리 출현한 신라관련 현존문헌은 890년(眞聖女王 4)에 편찬된 崔致遠의 <朗慧和尚碑>이다. 이 비문에 의하면 신라 景文王이 朗慧無染과 대화에서 일찍이 《문심조룡》을 열독했다고 했다. 경문왕의 활동시기로 미루어 보아 9세기 중엽에 《문심조룡》이 한반도에 이미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최치원의 <法藏和尚傳>에도 《문심조룡》이 언급되고 있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최치원 이후부터 조선 전

26) 《성호사설》 제5 <萬物門> 중 <琴>(驪江出版社本, 책5, 140쪽), 제12 <人事門> 중 <遵先王>(책5, 413쪽), 제20 <經史門> 중 <蠅變白黑>(책6, 716쪽) 등 참조.

기까지 한국 문단에 《문심조룡》이 유통되었다는 기록을 찾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도 한국 한문학의 흐름으로 보아 《문심조룡》이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다.

17세기 초반기 李睟光, 張維, 任叔英에 의해 《문심조룡》이 언급된 기록이 다시 보였고, 18세기 전후에 들어와서 조선 문헌에 《문심조룡》이 대량으로 등장하였다. 이 시기는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불릴 정도로 문단의 황금기를 맞이했다. 문체반정을 주도한 正祖, 奎章閣 李德懋, 별열가 俞漢雋은 말할 것도 없고, 재야문인 姜彝天, 실학자 丁若鏞 등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이 《문심조룡》을 언급하거나 논평한 글을 남겼다. 19세기에 들어와서도 조선 문단에 《문심조룡》이 계속 유통되고 있었다. 金正喜, 李圭景, 李裕元 등이 《문심조룡》을 언급했다. 《문심조룡》을 언급한 조선 후기의 인사들을 분석해보면 실학자나 명·청조에 사신으로 나간 문인들이 많이 포진되어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 문단이 중국 문단과의 교류가 빈번하고, 중국 문헌을 빨리 접할 수 있는 계층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20세기 이후에는 한국 문단에 《문심조룡》이 새로운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燁燄之樂室; 戊子大雪後一日; 資料補助 張修禎, 洪承淑]

< 參考文獻 >

- 劉勰著, 范文瀾注, 《文心雕龍》, 學海出版社, 臺北, 1980, 再版.
 張維著, 《谿谷先生集》(標點影印韓國文集叢刊, 책92), 民族文化推進會, 서울, 1992.
 任叔英著, 《疏菴先生集》(標點影印韓國文集叢刊, 책83), 民族文化推進會, 서울, 1992.
 李瀼著, 《星湖全集》, 驪江出版社, 서울, 1984.
 正祖著, 《弘齋全書》, 文化財管理局藏書閣, 서울, 1978.
 李德懋著, 《靑莊館全書》(標點影印韓國文集叢刊, 책258), 民族文化推進

會, 서울, 2000.

姜彝天著, 《重菴集》, 朝鮮抄本. 奎11612본

俞漢雋著, 《自著》(標點影印韓國文集叢刊, 책249), 民族文化推進會, 서울, 2002.

丁若鏞著, 《與猶堂全書》(標點影印韓國文集叢刊, 책282), 民族文化推進會, 서울, 2002.

金正喜著, 《阮堂全書》(標點影印韓國文集叢刊, 책301), 民族文化推進會, 서울, 2003.

李圭景著, 《五洲衍文長箋散稿》, 明文堂, 서울, 1982.

成海應著, 《研經齋全集》(標點影印韓國文集叢刊, 책275), 民族文化推進會, 서울, 2003.

李裕元著, 《林下筆記》,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서울, 1991.

崔英成譯, 《譯註崔致遠全集》(四山碑銘), 亞細亞文化社, 서울, 1998; (孤雲文集), 1999.

朴現圭著, <《文心雕龍》과 《文賦》의 한국 傳來 時期攷>, 《仁山學》, 3집, 仁山學研究院, 2005.12.

<中文提要>

劉勰의 《文心雕龍》은 中國 中代 古文學의 代表性 理論 評論書. 本論文 分析了 從 新羅 時代 開始 到 朝鮮 末期, 《文心雕龍》 流傳 到 韓半島 的情況. 根據 現存 的 資料, 《文心雕龍》 早在 9世紀 中葉 就 已經 在 韓半島 流傳了. 新羅 景文王、朗慧 无染、崔致遠 等 曾 提到了 《文心雕龍》. 崔致遠 在 <朗慧 和尚 碑> 的 景文王 在 和 朗慧 和尚 的 對話 中 引用了 《文心雕龍》 的 句子, 并在 <法藏 和尚 傳> 中 也 提到了 《文心雕龍》. 看似 《文心雕龍》 也 曾 在 高麗 時期 和 朝鮮 前期 流傳過, 但 可惜 的 是 無法 找到 與 這 有關 的 現存 記錄.

到了 朝鮮 後期, 可以 找到 很多 有關 《文心雕龍》 被 流傳 的 事例. 17世紀,

李睟光、張維、任叔英也曾提到了《文心雕龍》。到了18世紀前後，提到《文心雕龍》的文獻大量出現。朝鮮正祖、李德懋、俞漢雋、姜彝天、丁若鏞等人也曾提到過《文心雕龍》或是留下了評論。特別是主導文體反正的正祖批評了六朝時代的文章，認為《文心雕龍》正確選擇了許多理論，循理而給予了好評。與正祖站在相反立場上的在野學者姜彝天也在看了《文心雕龍》後，留下了讀后感。19世紀的金正喜，李圭景，李裕元等都曾引用過《文心雕龍》或對此進行了論評。此外，還有李瀾把《新論》誤以為是劉勰的著作。

주제어 : 文心雕龍, 劉勰, 韓國 傳來, 新羅, 朝鮮